

최고 수준의 멀티미디어기기용 검색시스템 개발



<대기업 부문>

삼성전자(주) 박희선 수석연구원

과 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멀티미디어기기용 차세대 검색시스템을 개발하여 멀티미디어 기기에 적용한 삼성전자(주) 박희선 수석연구원과, 국내 최초로 동맥경화치료제용 원료의약품 등 다수의 원료의약품 생산기술을 개발한 (주)대희화학 황성관 부장을, 이달의 엔지니어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부문 수상자인 삼성전자(주) 박희선 수석연구원은 멀티미디어기기용 검색 시스템 개발과 초경량 임베디드 DB를 개발하여 이와 관련된 신제품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박 연구원은 여성으로는 최초로 이달의 엔지니어상을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박 연구원은 고속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응용하여 휴대폰이나 MP3 플레이어 등 모바일 기기와 DTV, PVR 등 홈 엔터테인먼트 기기의 대용량화 추세에 맞춰 멀티미디어의 정보검색 속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관련 특허 15건을 출원·등록하여 향후 멀티미디어 신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박 연구원은 낸드플래시메모리를 저장장치로 사용하는 기기에서 검색성능이 월등하도록 낸드플래시에 특화된 DB 기술도 개발하였는데, 이는 DBMS 엔진 개발에 있어 불모지인 국내 사정을 감안할 때 향후 관련 기술의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모바일 기기의 고성능·고기능화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맞춤형 응용 SW기술의 적용 여부가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 요소로 부각되고 있어 박 연구원이 개발한 성과는 국내외 멀티미디어 검색 분야의 기술 발전과 멀티미디어 제품군의 수익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연구원은 “나에게는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에 열정을 가지면

동맥경화치료제용 원료의약품 생산기술 개발



<중소기업 부문>

(주)대희화학 황성관 부장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이 있다. 끊임없이 창의적인 연구개발에 매진하여 ‘여성 최초’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않고 최고를 향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중소기업 부문 수상자인 (주)대희화학 황성관 부장은 국내 최초로 동맥경화치료제용 원료의약품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양산하는데 크게 공헌하여 관련업계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동맥경화치료제용 원료의약품은 결정형태의 물성이 특이하여 대량 양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황 부장은 결정의 메커니즘을 연구하여 양산화가 가능하도록 핵심기술인 결정화 및 정제기술을 개발하여 제품의 순도를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켰다. 특히, 기존 제법을 완전히 탈피하여 최종제품의 물성에 꼭 필요한 결정화 공정 위주로 단계를 최소화하고 저가로 양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불량률도 개선하여 원료 생산수율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기술은 이전까지는 외국 회사가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어 국내업체들이 접근하기 힘든 기술로 국산화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또한 고혈압치료제용 원료의약품과 위장치료제용 원료의약품 등 다수의 원료의약품을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하고 수입대체에 성공하여 국내 의약품 생산의 원가절감과 이익률 개선에 크게 공헌하였고 지금까지 10여건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등 관련 기술 선진화에 공헌하였다. 1976년 설립된 (주)대희화학은 원료의약품을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정밀화학 전문기업이다. 소염진통제용 원료의약품을 세계에서 두번째로 개발하는데 성공한 것을 시작으로 고혈압치료제용 원료의약품 등 많은 원료의약품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 100여 개의 제약업체와 해외 30여 개 제약업체에 원료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

글 | 편집실